

## 내일의 우리사회

나는 자연과학을 사랑한다. 자연과학은 우주의 진리를 알아내고 검증해 가는 과정으로서, 우주의 진리만이 결국에는 남는다. 나에게 있어서 진리를 알아낼 때의 쾌감은 그 어떤 성취에서의 만족보다 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젊은 자연과학도들도 진리만을 탐구하고 참되게 연구하는 자세를 가지기를 바란다. 다들 “선진국, 선진국” 하지만, 이런 자연과학적 전통을 갖추지 못한 가짜 선진국들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앞으로 발전할 미래의 우리 사회가 자연과 인간이 이루는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탄탄한 자연과학적 전통을 쌓아나가길 바란다. 눈앞의 거품과 시류에 빠져 기초를 튼튼히 닦지 못하고 살아가다보면 급변하는 대내외적 역경 속에서 자체적인 역량으로 진화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소멸하게 되는 예를 우리는 자연과 인류역사 속에서 수없이 보아왔다.

우리의 선진국은 GNP로 정의된 선진국일 뿐만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질 좋은 선진국이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신분 이동이 용이해야 함은 물론 그 신분이동 과정을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해야 할 것이고, 살기 좋은 환경을 가진 국토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입시에 의한 신분이동이라면 많은 사람이 동의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미래 우리의 후손들에 대한 교육제도는 급변하는 무한경쟁 체제 속에서 스스로가 처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시스템과, 그러한 능력을 갖춘 인재를 평가할 수 있는 (100년 쯤 변하지 않는)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입시제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사교육이 판치며 입시성적만을 중요시하는 제도 하에서는 ‘공부’를 위한 기술적인 ‘공부’로 그치며 인간과 자연에 대한 즐거운 깨달음을 추구하는 기초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초를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풍토와 교육환경 속에서 나는 우리의 자연과학적 전통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크게 꽃피우기를 바란다.

김       진       의